

# 대한민국, AG 6회 연속 2위 정조준

내달 18일부터 9월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한국, 태권도·펜싱·양궁·사격 등 효자종목 앞세워 금메달 65개 목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미디어데이 기자회견이 열린 10일 오전 충북 진천군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각 종목 대표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8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선수단은 6연속 종합 2위 수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8월18일부터 9월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 등지에서 개최된다. 당초 베트남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으나 2014년 베트남이 경제난을 이유로 개최를 포기하면서 인도네시아로 장소가 옮겨졌다. 인도네시아는 1962년 제4회 자카르타 대회 이후 56년 만에 아시안게임을 개최한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5개 국가에서 1만명이 넘는 선수단

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0개 종목, 463개 세부 경기에 걸린 메달을 놓고 치열한 대결을 펼친다. 한국은 전통적인 효자 종목 태권도와 펜싱, 양궁, 사격 등을 앞세워 금메달 65개로 2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중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중국은 금메달만 151개를 획득했다. 당시 한국은 금메달 79개, 은메달 70개, 동메달 79개를 따냈다. 일본은 금메달 47개로 3위에 머물렀다. 인천아시안게임 때보다 목표 금메달 수가 줄었다. 그러나 금메달 65개도 쉬운 목표는 아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은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 수년 간 과감한 투자와 선수 육성을 했다. 과거 한국과 중국이 앞섰던 일부 종목에서 일본의 선전이 예상되는 이유다. 일본은 1000명이 넘는 선수단을 인도네시아로 보낸다. 이재근 진천선수촌장은 “당초 75개 정도로 계획을 잡았고, 일본은 60개 정도로 느긋한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레슬링, 사이클 등 국제 대회에서 종목별로 일본이 급부상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대비해 다양한 종목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일본은 선수 훈련 시스템이 고도화 됐다. 우리의 메달이 일본에게 잠식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선수 779명, 경기임원 181명, 본부임원 52명 등 1000명 이상

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한다. 선수들은 2위를 내주지 않기 위해 무더위 속에서 다시 한 번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에서 8개의 금메달을 휩쓴 펜싱은 박상영, 김지연을 필두로 이번에도 금메달을 대거 사냥해 효자종목의 입지를 굳힌다는 각오다. 태권도에서도 대회 3연패를 노리는 이대훈 등을 앞세워 7개 이상의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전 종목이 금메달 후보여서 썩쓸어도 바라보고 있다. 중국 일본을 넘어선 정구에서도 많은 금메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정구에 걸린 7개의 금메달을 모두 쓸어담는 저력을 보였다. 세계 최강 양궁은 3관왕을 노리는 장혜진, 김유진을 앞세워 전종목 석권에 도전한다.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구기종목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아시안게임에서의 성적은 각 종목의 흥행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또 다른 관심사는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이다.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아시안게임에서도 남북 관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됐다. 아시안게임에서도 남북이 공동 입장을 하고,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드래건보트, 조정, 농구 등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한다는 계획과 남북이 손잡고 뛰는 단일팀, 남북이 함께 운영하는 현지 홍보관인 코리아하우스 등 스포츠를 통해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생애 첫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참가한 추신수 “야구신의 선물”

“국가와 가족에게 큰 영광”



생애 첫 미국 메이저리그(MLB) 올스타전에 참가하는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기쁜 마음을 전했다. 17일(한국시간) 올스타전 앞두고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파크에서 현지 언론과 인터뷰했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30개 팀에 있는 최고의 선수들을 생각해 보라며 ‘민약 내가 올스타로 선정된다면 그건 ‘야구 신의 선물’이다’고 밝혔다.

또 “이 것(올스타전 출전)은 내 국가, 내 가족에게 큰 영광이다”면서 “한국에서 자라날 때 나는 경기하는 것만을 내내 생각해왔다. 이제는 단지 최고의 선수들과 한 경기 치르고 싶은 마음”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나는 조금씩 그 꿈을 위해 노력했고 경기를 잘 해내려 했으며 야구를 존경하고 매일 내 최선을 다했다.”

추신수는 “민약 어린이들이 보게 된다면 나는 좋은 예시가 되고 싶다”며 “한국의 아이들이 나를 롤모델로 삼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최고의 경험일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국가적 영웅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 과찬”이라며 자제를 낮춘 추신수는 “나의 커리어는 계속되고 있고 어떻게

끝나게 될지 모른다. 나는 그저 계속 플레이 할 뿐”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팀 동료들과 가족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은 추신수다. “올스타전 출전 소식을 들은 날은 매우 특별했다. 내 아내는 행복해하며 눈물을 보였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축하한다. 당신은 자격이 있다”라는 문자를 보내줬다”고 떠올렸다.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 팀의 감독을 맡은 LA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도 추신수에게 거는 기대감을 전했다. “추신수의 존재가 우리 모두보다 크다”며 “그를 보기 위해서는 전반기에 그가 해낸 것을 봐야한다. 나는 그를 만나는 게 즐겁고 존경심이 생긴다”고 추어올렸다.

## 군대가 걸린 사안...야구·축구, 둘 다 금메달 따낸다

축구대표팀 손흥민 병역 혜택 마지막 기회...야구 미필자는 총 7명



손흥민, 조현우, 이승우, 김민재

국내 프로스포츠의 양대 산맥으로 분류되는 야구와 축구가 다음달 18일 개막하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두 대회 연속 동반 금메달에 도전한다. 최고 인기 프로스포츠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야구는 3회 연속 우승을 노린다. 선봉열 감독은 25명 엔트리 전원을 프로 선수로 구성할 정도로 금메달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양현종(KIA), 함덕주(두산), 차우찬(LG), 정우람(한화) 등 김광현(SK)을 제외한 국내 대표 좌완들과 이용찬(두산), 임찬규 정찬현(이상 LG), 최충연(삼성) 등 우완 투수들이 조화를 이룬다. 포수는 리그 최고로 우뚝 선 양의지(두산)가 주전으로 나선다. 역대 최강은 아니지만 박병호 김하성(이상 넥센), 최정(SK) 김재환(두산) 등으로 이뤄진 거포 라인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조

금도 부족함이 없다. 1998년 방콕대회부터 프로 선수들을 내보내기 시작한 한국 야구는 2006년 도하 대회를 제외한 4개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는 대만이 꼽힌다. 대만은 NCT이노스 소속으로 한국 야구를 경험한 왕웨이중까지 발탁할 정도로 ‘타도 한국’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축구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한 손흥민(보트넘)의 출전으로 벌써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시즌 초반을 포기하면서 자카르타로 날아가는 이유는 이번 대회에 걸려있는 병역혜택 때문이다. 만 26세인 손흥민에게 아시안게임은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보다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한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리스트에게만 병역혜택이 돌아간다. 김학범 감독은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활약한 골키퍼 조현우(대구)와 성남FC 시절 연을 맺은 황의조(강남 오사카)를 와일드카드(24세 이상)로 선발했다. 연령 제한이 없는 야구와 달리 축구는 총 20명 중 와일드카드에 해당하는 선수를 최대 3명까지 뽑을 수 있다. 23세 이하로 이미 대표팀을 경험한 황희찬(잘츠부르크), 이승우(엘라스 베로나), 김민재(전북)의 이름도 눈에 띈다. 나이에 비해 많은 경험을 갖춘 선수들이 출비해 역대 최고 전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명 모두 미필자로 구성돼 동기 부여도 확실하다. 국내 4대 프로스포츠에 포함되는 남녀 농구와 남녀 배구도 우승을 목표로 조지력 다지기에 한창이다. 여자 농구는 북한과 막바지 단일팀 협상 중이다. 최대 3명의 북한 선수가 가세할 예정인데 이 경우 현재 훈련 중인 한국 선수를 3명이 빠져야 한다.



## 호날두 “유벤투스行 결정 쉬웠다”

“이탈리아 최고이자 세계 손꼽히는 클럽... 챔피언스리그 우승 목표”

“유벤투스행을 결정하는 건 쉬웠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포르투갈)가 새롭게 이탈리아 세리에A 소속의 명문 클럽 유벤투스 유니폼을 입었다. 호날두는 17일(한국시간) 공식 입단식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유벤투스로 오는 건 나에게 쉬운 결정이었다. 유벤투스는 이탈리아 최고 클럽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클럽 중 하나”라고 만족스러움을 표했다.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호날두는 2022년 6월30일까지 유벤투스 소속으로 뛴다. 호날두가 이탈리아 리그에 몸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적료는 1억 유로(약 1308억원)다. 그는 “내 나이에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23살이 아닌 33살이지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어 “하위 리그 스포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것처럼 여전히 도전을 즐긴

다. 이번도 도전이다”며 “유벤투스 역사에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고 밝혔다. 또 “나는 안주하거나 과거의 업적을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이다”며 “미래를 보고 집중할 것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최고 선수라는 것을 다시 입증할 것이다”고 했다. 유벤투스는 세리에A에서 7년 연속 정상에 오른 강호다. 호날두의 합류로 날개를 달았다. 사실 더 큰 목표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있다. 유벤투스는 1995~1996시즌 이후 20년이 넘도록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 호날두는 “모든 클럽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원하고 유벤투스 역시 다르지 않다. 그들은 최근 몇 시즌 동안 서서히(정상)에 다가갔다”며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한다는 것 매우 어렵지만 우승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이다”고 했다.

뉴시스

## 한 달 남았는데, 조 추천 다시...답답한 김학범호

상대·일정 정해지지 않아 전력분석·일정 확정 모두 중단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조 추첨을 다시 하는 진풍경이 나왔다. 개막을 한 달 앞둔 김학범호는 답답할 따름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6일 “아시아축구연맹(AFC)과 아시아올

림픽평의회(OCA)가 아시안게임 본선 조 추첨을 할 때, 일부 나라를 빼제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조 추첨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당초 한국은 조 추첨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바레인과

E조에 편성됐다. 비교적 상대하기 수월한 상대로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원점이다. 무엇보다 본선을 맞춰 상대를 분석하고 여러 일정 등을 검토하던 코칭스태프는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졌다. 김학범 감독은 “상대 분석과 토너먼트에 갈 경우에 대한 것까지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울스푼된 상태다. 다시 하는 조 추첨이 끝나

야 무언가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일정 역시 미정이라 구체적인 경기 일정과 동선 등을 파악하는 것도 계획할 수 없다. 일단 김학범호는 이달 31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소집해 다음달 9일 이라크와 한 차례 평가전을 치를 계획이다. 관계자는 “8월10일에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예정이지만 일정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